

## “기본소득과 나”

안재성

소설가

나만 그런지 몰라도, 나이가 들수록 세상사를 다중적으로 보게 된다. 어떤 사안이나 인물에 대해 딱 부러지게 옳고 그르다거나 좋고 나쁘다고 단정하기가 어려워진다. 어제의 정의가 오늘의 불의가 되고 어제의 악이 오늘의 선이 되는 꼴을 하도 많이 보아서인가, 세상 만사가 다 상대적으로 보이니, 특정 가치나 주장을 고수해야 한다는 고집은 점점 줄어들고 서로 상반되는 주장들을 양쪽 다 이해하고 들어주게 된다.

기본소득에 대한 내 주변인들의 반응에 대해서도 그렇다. 전통적 의미의 계급적 속성이나 보수냐 진보냐 하는 정치 성향과 상관없이 나타나는 다양한 견해를 듣노라면 어느 말이 맞고 어느 쪽은 틀리다고 단정하지를 못하고 이 말, 저 말, 다 수긍하게 된다.

몇십 년 전인지 세어 보기도 힘든 오래 전, 고등학교 때의 기억이다. 어렸을 때 우리집은 늘 침침했다. 아버지가 전기를 아끼려고 약한 전구만 달아놓았기 때문이다. 전기세 많이 나왔다고 걱정하는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었다.

“전기, 전화, 버스 같은 기본적인 생활비는 국민들에게 무료로 제공해야지 왜 돈을 받아요?”

시골에서 농사를 짓던 아버지는 서른이 다 된 나이에 철도청 임시공으로 취직해 박봉으로 네 아이를 키우고 있었다. 아무리 힘들게 일해도 가난하기만 한 아버지를 생각해서 한 말인데, 아버지는 예상 외의 반응을 보였다.

“그게 무슨 도둑놈 심뿐냐? 전기, 전화를 공짜로 주면 다들 맘대로 엄청나게 낭비할 텐데 나라에서 어떻게 감당을 하나?”

평생을 일밖에 모르는 아버지였다. 고박 33년을 철도청에서 근무하고 정년

퇴직을 하자마자 작은 빌딩의 경비로 들어가 다시 20년을 근무하셨지만 생전 가난에서 벗어나질 못했다. 그럼에도 열렬한 보수파여서 돌아가시기 얼마 전까지 광화문 태극기 집회에 참석해 일당을 받아 오셨다. 만일 아버지께 기본소득에 대해 물었다면 펄쩍 뛰며 반대했을 것이다. 일해서 별 생각은 않고 열심히 일한 사람들이 낸 세금으로 살겠다니 그게 무슨 도둑놈 심뻐냐고 말이다.

내가 기본소득이라는 단어를 처음 들은 게 7, 8년은 된 것 같다. 친한 벗들끼리 밥을 먹는 자리였다. 어디서 듣고 왔는지 한 친구가 기본소득에 대해 설명하는데 나는 깜짝 놀랐다. 모든 국민이 일을 하든 않든 상관없이 최소한 굶주리지 않도록 보장하는 제도라니, 듣자마자 대환영했다.

자리를 같이 한 다른 친구는 반대했다. 누구에게나 기본 생활비를 주면 누가 열심히 일을 할 것이며, 또 그 엄청난 재정지출을 하려면 부작용이 얼마나 크겠냐는 것이다. 부자나 가난뱅이나 똑같이 받게 한다는 것도 부당하다고 했다. 자기는 열렬한 민주당 지지자이지만 기본소득은 절대 반대라고 했다.

민주당을 보수정당의 하나라고 비판해온 또 다른 친구도 기본소득에 회의적이었다. 그는 누구에게나 기본소득을 주면 계급적 불만이 완화되어 자본주의가 더욱 공고해지지 않겠느냐고 했다. 약자들의 권익은 투쟁을 통해 쟁취해야지 개량적인 시혜로 얻으면 한계가 있을 뿐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패배주의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다.

기본소득을 주면 자본주의가 강화된다는 원리주의자의 반대는 사람들을 설득하기 어렵다 해도, 민주당 지지자의 우려는 상당히 보편적인 것 같다. 기본소득당의 활동을 알리는 언론 기사 밑에 달리는 댓글들을 보면 90%는 원색적인 비난이다. “왜 내가 고생해서 낸 세금으로 놓고 먹는 이들을 먹여 살려야 하느냐.”는 것이다. 작년부터 코로나로 인한 재난지원금이 보편화되면서 기본소득에 대한 인식이 넓어진 것 같지만, “무슨 도둑놈 심뻐냐?”는 식의 혐오 댓글은 달라지지 않았다.

놀랍게도, 내 주변인 중 기본소득에 찬성하는 이들은 남들보다 훨씬 많은 세금을 내는 이들이었다.

한 사람은 나의 사촌형이다. 사촌형은 노동자가 스물 남짓한 가내공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정치적으로는 민주당을 아주 싫어하는 보수파다. 그런데 내가 기본소득에 대해 말하니 대단히 반겼다. 자기같은 영세기업주는 아무리 애를 써도

직원들에게 충분한 임금을 주지 못하고 있다며, 국가에서 소액이라도 전국민에게 기본수당을 주면 좋겠다고 했다.

내가 아는 또 다른 기본소득 지지자는 수천 명의 노동자를 둔 중견기업의 대표이다. 저명한 독립운동가의 후손이라서 대화를 나눌 기회가 생겼는데, 정치적으로는 대단히 보수적인 분인데도, 컴퓨터와 로봇의 발달로 실업자와 저소득자가 늘어나 사회가 불안해지고 있으니 전국민에게 기본소득을 줘서 폭동이 일어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까지 했다.

이렇듯 다양한 반응들을 보면 기본소득에 대해 찬성하느냐 마느냐로 한 사람의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든다.

기본소득에 대한 나의 생각도 단순하지만은 않다. 고등학교 때부터 자연스럽게 기본소득 개념을 상상했던 나는 후배로부터 이야기를 들은 후 내 발로 기본소득네트워크에 가입했고 기본소득당이 창당될 때는 발기인으로 참가했다. 기본소득당은 지금도 나의 유일한 정치적 활동이다. 그럼에도, 만일 현재의 금전가치 기준으로 모든 국민에게 1인당 월 100만 원의 기본소득을 주자는 정책이 발의되면 솔직히 나는 반대할 것이다. 액수가 클수록 기본소득의 이념에 부합한다 해도, 그 정도 부담을 해도 나라가 망하지 않을 수 있다 해도 마찬가지다.

왜냐하면 나는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던 노동운동의 구호를 자본가만이 아닌 모든 사람에게 적용하고 싶은, 인간은 노동을 통해 세상을 유지하고 자아를 실현한다고 믿는 고루한 끈대이기 때문이다.

다만 아무리 세상이 좋아지고 나라 전체의 부가 커진다 해도, 열심히 일해도 저임금을 받을 수밖에 없는 노동자, 질병이나 실업으로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사람들, 원천적으로 일을 해서는 안 되는 노약자나 임산부가 존재하기에, 이 나라 땅 안에 사는 한 그 누구도 굶주리거나 추위에 시달리지 않도록 최소한의 사회보장을 하자는 게 내가 가진 기본소득론의 한계이기 때문이다.

부자들 가난한 사람이든 똑같은 액수의 기본소득을 주자는 이유는 사회보장 혜택의 기준을 심사하는 과정의 낭비와 불합리를 줄이자는 것이다. 어제의 사장이 내일 부도가 나서 노숙자가 될 수도 있고, 월급이 1만 원이 올라 기준을 넘었다고 사회보장의 혜택을 못받을 수도 있는데, 그 수많은 변동사항을 각자 신고해야 하고 수많은 공무원이 이를 개별 심사하는 짓이야말로 낭비라고 보기 때문이다.

이 정도가 내가 생각하는 기본소득인데, 나와 같은 기본소득당 당원이라도 생각이 다른 사람이 많을 것이다. 그러나 서로 다른 걸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모아서 정책에 반영하고 또 설득의 변을 만들어내는 게 필요하다고 본다. 통일을 너무 좋아하지 말자. 행동은 함께 하 되, 생각은 서로 다를수록 발전의 여지가 높아진다는 말은 사족일까?